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점심생운

생활과 윤리

Final-Z

점심생운 모의고사

주요 주제 10문항 (하프)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점심생운 Final-Z 모의고사

점심생운™

김지호 (저동고)
권예림 (상명대)
김지호 (윤리교육 전공)
배민경 (성신여대 교육학과)
서예은 (청주중앙여고 교사)
유영우 (대인고)
이현승 (울산여고)
진해인 (교육학 전공)
서지영
이세라

학생 검토진

김정우
박서현
박찬우
송예은
이민경
이준영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펴 낸 일 2024년 11월 07일
펴 낸 곳 점심생운™
저 자 점심생운™
문 의 EMAIL_ lunchethics01@gmail.com | INSTAGRAM_ @lunchethics

점심생운은 질 좋은 자료를 무료로 배포함에 있어 교육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점심생운™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으로 게시·가공·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권장 시간 : 16±2 분 각 문항당 5점 배정
----	-------	------------------------------

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조를 개인주의적 재산권 이론에 근거해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주장은 원조에 관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기아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국민이 굶주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반영합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기근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보 기 > —
- ㄱ. 갑 :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의 예방보다는 빈곤의 해결에 있다.
 - ㄴ. 을 : 원조 주체는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사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 ㄷ. 을 : 만민법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사회는 결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ㄹ. 갑과 을 : 특정 빈곤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하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을 : 고통의 체험 속에 사는 수형자는 구경꾼들이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위안과 변통 거리를 찾아낸다. 구경꾼은 불행한 수형자의 무감각해진 마음 대신 자신의 현재의 감수성으로 사태를 판단한다. 구경꾼에게 수형자의 모든 고통은 상상 속에서 더욱 증폭된다.

병 :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 해도 생과 사 사이에 동등성은 없으며,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 ① 갑 : 살인을 저지른 악인(惡人)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② 을 : 형벌이 유용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그 형벌은 필연적으로 정당화된다.
- ③ 병 : 입법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意慾)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이다.
- ④ 갑과 을 :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 ⑤ 을과 병 : 동해(同害) 보복법에 따라 범죄와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나라를 장악하기 전에는 시민이나 나라에서도 악과 불행이라는 나쁜 일의 종식은 없을 것이며, 정의로운 정체(政體) 또한 그 완성을 볼 수 없다. 국가는 수호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 ① 국가를 개인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올바른 사회적 역할 분담은 정의로운 국가의 충분조건이다.
- ③ 각 계층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분담된 것이다.
- ④ 각자의 직분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계급은 재산을 가져야 한다.
- 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상위 계층과의 직업 교환이 가능하다.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아직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체 기관이 형성된 존재에 대해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 이전의 존재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정(授精) 이후 모든 신체 기관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 머무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로부터 인간이 되는 과정은 끊임없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 : 물론 출산 직전의 태아는 그러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 기관이 형성된 태아와 달리, 이전의 존재는 감각 기관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그러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을 : 인간 이전의 존재와 인간의 유전적 특징은 다를 수 있어도, 잠재적 인간으로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 중 구성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① 잠재적 인간으로서 태아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하는가?
- ② 인간 종(種)의 구성원에 태아를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한가?
- ③ 출생(出生) 이전과 후의 인간의 유전적 특징은 다를 수 있는가?
- ④ 어떤 존재가 도덕적 권리를 지니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따르는가?
- ⑤ 정상적인 감각 능력을 지닌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가?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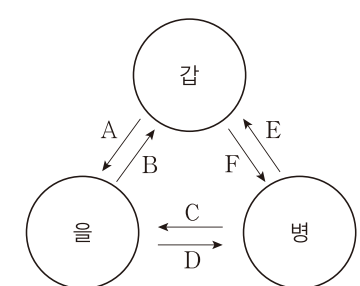
(가)

갑 :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통치자가 피치자의 자유, 생명,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을 : 사회 계약을 통해 인간이 잃는 것은 자연적 자유와,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다. 국가가 형성될 때 개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전면 양도한다.

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경쟁, 불신,功名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은 사회적 동의로 절대 권력을 수립한다.

(나)



—(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예시)—

갑 —A→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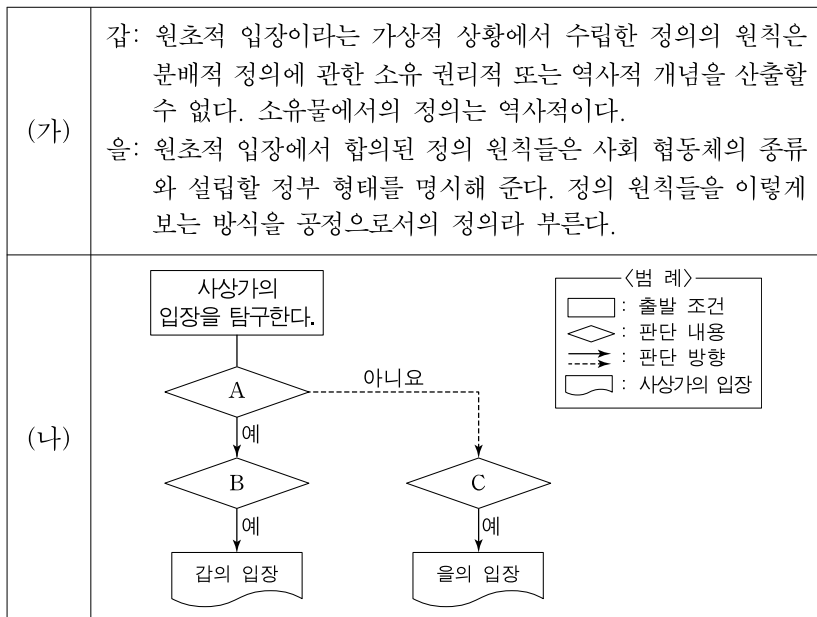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 ① A : 인민은 적극적 저항권을 통해 정치 사회를 해체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 사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 속의 인간은 자유를 잃게 됨을 간과한다.
- ③ C와 E : 통치자는 신으로부터 절대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았음을 간과한다.
- ④ D : 자연 상태는 역사적으로 실재(實在)했던 상태로 간주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 자연법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면서 인간이 인식 가능한 대상임을 간과한다.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A: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 의해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가?
 - ㄴ. B: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개인에게 소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가?
 - ㄷ. C: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그 자체로 개인의 사적 자산이 아니라 공동 자산인가?
 - ㄹ. C: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성취되어 죽음의 세계에 도착하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동시에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을: 지인(至人)이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자연을 함께 즐기는 사람이다. 사람과 물건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투지 않고, 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 ① 갑: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닌 사람은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 ② 갑: 죽음이 다가올 때 죽기를 주저하는 자는 부와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다.
- ③ 을: 삶과 죽음은 곧 기(氣)가 연결되었다가 끊어지는 과정의 반복이다.
- ④ 을: 진인(眞人)은 차별 없이 삶을 기뻐하며 죽음을 미워하지 않는다.
- ⑤ 갑과 을: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비로소 육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성(理性)은 도덕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최고 권력의 왕좌를 차지한다. 이성이 전쟁을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평화 연맹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을: 인간의 실제적인 육체적·정신적 실현이 어떤 영향으로 인하여 그 잠재적 실현보다 낮아진다면, 그리고 둘 사이의 괴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거기에 폭력은 존재하는 것이다.

- ① 갑: 타국의 침략에 대응할 권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 ② 갑: 국가 간의 상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결코 발행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군사(軍事)훈련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 ④ 을: 문화적 폭력은 종교나 예술과 같은 경험적 사실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 ⑤ 갑과 을: 폭력의 사용은 법적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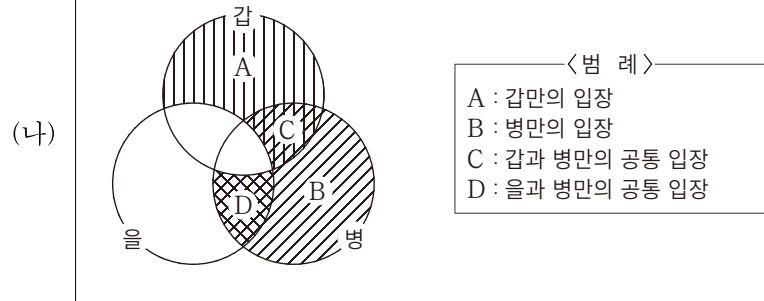
갑: 시민 불복종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가 위반이나 침해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서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숙고를 강요하게 된다.
 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국가적인 관심을 촉구할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이 겪는 고통을 공중에게 알릴 목적의 시민 불복종은 가능하다.

- 〈보기〉
- ㄱ. 갑: 정의의 원칙이 잘 보장되는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은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 ㄴ. 갑: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ㄷ. 을: 시민 불복종이 법의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다수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 ㄹ. 갑과 을: 시민 불복종은 항상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에 대해서만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바람직한 토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을: 우리의 모든 경험상 한갓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존재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통상 한갓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병: 지각력이 없으나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가진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짓는 특징은 그 존재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며 내재적 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 〈보기〉
- ㄱ. A: 생명체에 대한 존중은 생명 공동체의 선을 보전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 ㄴ. B: 좋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 ㄷ. C: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존속할 권리와 더불어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 ㄹ. D: 자연에 대한 윤리적 의무는 오직 실존(實存)하는 인간들 사이의 교섭에서만 발생한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확인 사항
 ○ 여러분의 값진 한 해에 점심생윤이 함께할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점심생윤팀이 응원합니다. - Farewell -